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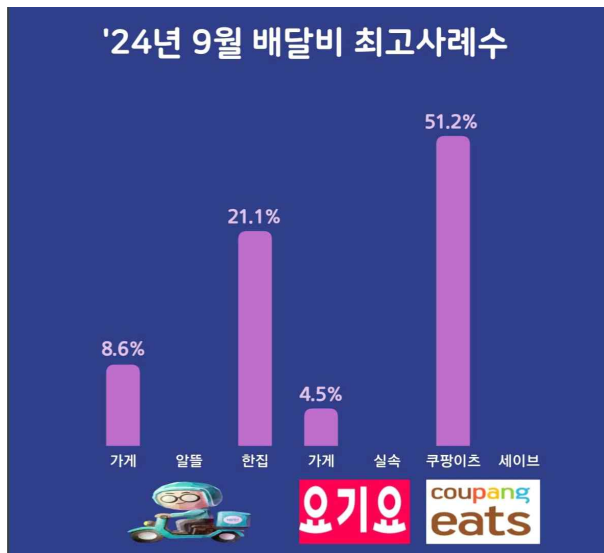
9월 배달비 분석

조사 개요

- 조사 지역 : 서울시 25개 구 각 2개동
- 조사 일시 : 2024년 9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12시~15시
- 조사 업종 : 중식, 피자, 한식
- 조사 내용 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배달앱을 이용, 최소주문액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 요금
- 조사 업체 수 : 배달의 민족(가게배달) 379개, 배민1(한집배달) 386개, 배민1(알뜰배달) 390개
요기요(가게배달) 321개, 요기요(실속배달) 182개
쿠팡이츠 406개, 쿠팡이츠(세이브배달) 406개

1. 배달앱 및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비교

<표 1. 배달앱 및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비교1) >



- 소비자가 최소 주문액으로 주문 시, 동일 업체에서 지불하는 배달비 비교 결과
최고 배달비 가장 많은 앱 순은 쿠팡이츠 51.2% > 배민1(한집배달) 21.1% > 배달의 민족(가게배달) 8.6%.
최저 배달비 가장 많은 앱 순은 배달의 민족(가게배달) 27.0% > 배민1(알뜰배달) 22.0% > 요기요(실속배달) 12.2%.

1) 최고, 최저 배달비는 3개 이상 배달비 중 top, bottom의 가격이 각 1개씩 있을 경우의 배달앱만 표시함.
배달의 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는 회원의 경우,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본 조사에서는 비회원 배달비를 조사함.

2. 배달거리에 따른 배달앱,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현황

<표 2. 배달거리에 따른 배달앱, 배달서비스에 따른 배달비 현황>

(단위:원)

거리 구간	배달의 민족 (가게배달)		배민				요기요				쿠팡이츠			
			한집배달		알뜰배달		가게배달		실속배달		쿠팡이츠		세이브배달	
	최빈	최고	최빈	최고	최빈	최고	최빈	최고	최빈	최고	최빈	최고	최빈	최고
2km 미만	0	6,200	3,300	6,500	2,300	3,370	3,000	5,000	2,000	3,000	3,300	4,300	2,300	3,500
3km 미만	3,000	6,700	3,970 / 4,370	8,040	2,970 / 3,370	4,140	3,000	7,000	3,000	3,500	4,000	5,400	3,000 / 3,700	4,600
4km 미만	3,900	8,400	4,140	6,580	4,510	5,580	0	4,900	-	4,500	5,400	6,400	4,400	5,600

- 거리별 최빈 배달비 분석 결과 <2km 미만>에서는 쿠팡이츠와 배민1(한집배달)이 3,300원으로 다른 앱보다 최대 3,300원 더 높음. <2km~3km 미만>에서는 배민1(한집배달)이 4,370원으로 가장 높았음. <3km~4km 미만>에서는 쿠팡이츠가 5,400원으로 가장 높았음.
- 거리별 최빈 배달비를 7월과 비교한 결과, <2km 미만>에서 배달의 민족(가게배달)은 1,900원/ 2,000원에서 0원으로 최대 2,000원 하락함. 반면, 배민1(한집배달)과 배민1(알뜰배달)은 각각 3,200원에서 3,300원으로, 2,200원에서 2,300원으로 100원 상승함. <3km~4km 미만>에서는 배달의 민족(가게배달)이 3,000원에서 3,900원으로 900원 상승한 반면, 배민1(한집배달)은 5,910원에서 4,140원으로 1,770원 하락함.

3. 7월 대비 9월, 동일 업체 배달비 변동 현황

<표 3. 7월 대비 9월, 동일 업체 배달비 변동 비교 결과>

(단위: %)

	배달의 민족 (가게배달)	배민1 (한집배달)	배민1 (알뜰배달)	요기요 (가게배달)	요기요 (실속배달)	쿠팡이츠	쿠팡이츠 (세이브배달)	평균
상승한 업체	7.7%	27.3%	26.2%	4.2%	0.7%	6.9%	15.5%	12.7%
하락한 업체	9.7%	10.4%	12.1%	5.2%	4.2%	10.2%	26.9%	11.3%
동일한 업체	82.5%	62.3%	61.7%	90.6%	95.1%	82.8%	57.6%	76.1%

- 동일 업체의 배달비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12.7%의 업체의 배달비가 상승함. 하락한 경우는 11.3%로 나타남. 상승한 업체가 가장 많은 배달앱은 배민1(한집배달)로 27.3%의 업체가 7월 대비 상승함.